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의 방적업의 발전

-오사카방적의 등장과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이 덕 훈*

(e-mail: ldukhoon@hanmail.net)

目 次

1. 시작하는 말
 2. 본 연구에서의 선행연구와 연구과제
 3. 근대 일본방적업의 출발
 4. 오사카방적(大阪紡績)의 등장
 5. 맺는 말
-

1. 시작하는 말

1733년에 존케이(John Kay)가 플라이 셔틀(fly Shuttle)을 발명하고, 1764년에는 제임스 하그리브스(James Hargreaves)가 제니 정방기(spining jenny)를 발명하였다. 그리고 1777년에는 크롬프톤(Crompton)이 제니 정방기의 결점을 극복하여 물 정방기(mule 精紡機)를 발명하였다. 여기서부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의 산업혁명기에 있어서도 방적업은 근대화의 주축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메이지(明治)초기의 일본에서의 면방적은, 면산지의 농가의 부업에 의한 수방(手紡)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었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함께 등장한 개항에 의해 구미의 기계제면사(機械製綿絲)의 저가격 고품질인 면사(綿絲)의 수입공세로 인해 품질과 가격 면에서 뒤떨어진 일본산의 면사는

*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메이지 초기의 면사의 수입액을 보면, 1868년(明治 1년)에는 123만 9천 엔 이었으나 1879년에는 4.4배 증가한 669만 4천 엔 까지 증가하여 신생 메이지(明治)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였다.¹⁾

일본 최초의 서양식 방적 공장은 1867 년에 준공한 사츠마(薩摩)에 의해 운영된 사츠마 번영(薩摩藩營)의 가고시마(鹿兒島)방적소이다. 이것을 보면 에도(江戶)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정부의 보호정책 이전에 근대 방적이 운영 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메이지(明治)정부의 근대 방적업에의 도전은 규모로 볼 때 에는 공장의 규모가 너무나 협소했으며 기술적으로는 원시적(原始的) 생산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한편 민간인에 의한 방적공장은 1871년에 카시마 만페이(鹿島万平)가 창업한 카시마(鹿島)방적소가 조업을 했지만 경제적인 면 에서도 기술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1876년에 가운 도키무네(臥雲辰致)는 일본인 처음으로 만든 방적기계인 가라紡²⁾이 등장했지만 이것 역시 대량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기능적으로도 좋지 않았다.

거액의 면사 수입액에 위기감을 느낀 메이지 정부는 수입 방지를 목적으로 근대적인 기계 방적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즉 (1). 관영공장의 설립, (2). 정부 구입의 방적 기계를 불하 (3). 방적 기계의 수입 대금의 立替 등을 중심으로 殖産興業정책으로 2,000 錘 방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10기 방적이 등장했지만 이것 역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실패하였다.

1882년에 시부사와 에치이(渋沢 栄一)는 민간인으로서 일본최초의 방적주식회사인 오사카방적(大阪紡績)을 설립하여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 수많은 기업인들이 줄줄이 방적업에 뛰어들게 하여 근대일본의 대표적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동시에 방적산업은 일본산업 으로서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뛰어든 산업이라고 하겠다. 특히 메이지시기의 상업자본이 산업자본화한 최초의 산업으로서의 오사카방적은 설립자인 시부사와 에이치의 신경지명과 창업가적기질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뒷받침한 야마노베 다케오(山辺 丈夫)의 기술자적 기업가정신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방적산업의 근대화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본고에서는 근대 일본에서의 면방적공장의 발전과정을 산업정책의 일환인 식산흥업정책(殖産興業政策)과 기업가정신을 축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일본의 방적업의 3대시조로 불리는 방적소 설립과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메이지정부의 2,000추 방적으로 불려지는 10기방적의 실패와 오사카방적의 설립과 변천과정에서 등장한 기업가정신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오사카방

1) 三瓶孝子(1941)『日本綿業發達史』慶応書房, pp12-21.

2) 수방적 도구를 개량하여 1876년에 만들어낸 방적기계(臥雲式紡績機가라紡機)에 의한 방적법.

적의 성공에 의해 등장한 수많은 방적회사들로 인해 이루어진 근대화초기의 메이지 일본의 경제적성공도 살펴보기로 한다.

2. 본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와 연구과제

1) 일본의 방적업에 관한 선행연구

일본의 초기 자본주의의는 방적, 제사 등의 섬유공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공업중심의 산업자본주의였음은 재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이러한 근대의 일본의 방적업의 발전이면에는 비참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습을 農商務省商工局編의 『職工事情』(1903년)³⁾이나 호소이(細井和喜藏)의 『女工哀史』(1925년)⁴⁾등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성인남자들뿐 아니라 여공이나 미성년자 까지도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과밀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즉, 메이지시기의 노무관리의 성립은 직공, 가족, 경영의 세관계중 직공과 가족의 목시적 협조아래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치모토(千本曉子)는 메이지시대 초기의 방적업의 노무관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가에 대해 아이치(愛知)방적소와 미에(三重)방적소가 직공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지만 도산하였으므로 오사카방적의 노무관리를 중심으로 직공임금과 남녀 간의 임금격차 등을 중심으로 공장규제와 방식을 설명하였다.⁵⁾ 하자마 히로시(間宏)⁶⁾는 일본방적업과 노동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접근하였다. 즉, 노사관계의 원시적 노동관계에 행해졌던 메이지시대의 방적업은 노사관계에 가족주의적 경영이 중심을 이루는데 가족주의 경영은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도입하여 발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 방적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일본방적업의 발전을 시기별로 구분한 것은 이이지마(飯島幡司)인데, 그는 일본방적업의 형성, 확립, 발전과정을 메이지시대(1860년)부터 1940년에 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방적업의 성장은 전국의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조달, 기숙사로 대표되는 노무관리, 대규모축적 자본을 이용한 면화의 조달과 여러 가지의 면화를 혼합하여, 그것

3) 공장법제정의 기초자료로서 행한결과로 초기 방적업등의 사업자본주의 초기의 가혹한 노동실태의 자료이다.

4) 교토의 빈농에서 자라난 저자가 공장노동자로서의 생활체험에 근거한 면사방적공장의 여공의 비참한 실태를 그린기록으로 수면시간까지 줄이며 이뤄지는 심야작업, 공장관리자의 학대와 벌금제도등 비인격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자료이다.

5) 千本曉子(1982), 「明治初期紡績業の労務管理の形成」 『国連大学人間と社会の開發プログラム研究報告』 HSDR JE-75J/UNUP-399 ,PP19-26.

6) 間宏 (1964) 『日本労務管理史研究 経営家族主義の形成と展開』ダイヤモンド社.,pp210-217.

을 일정한 품질을 갖춘 면사를 만든 기술, 동업자 단체에 의한 협조와 경쟁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⁷⁾

일본방적업에 있어서의 기술관리, 기술도입의 설명은 최근 활발히 행해진 분야 중 하나이다. 방적업은 이른바 전형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며, 그 고용 규모의 크기로부터도 효율적인 기술과 첨단기술도입의 중요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가토(加藤幸三郎)는 막말(막부말기) 유신기부터 2차 대전까지의 기초적인 산업부분을 구성한 섬유산업 특히, 면사방적업을 기술이전 및 형태에 대해 설명하였다. 양식기술 특히 물 방정기 부터 링 방정기로의 기술도입과 기술이전에 각 시기별로 통해서 나타난 기술이전에 대해 검토하였다.⁸⁾ 또한 타가무라(高村直助)는 일본의 방적업의 발달에서 등장한 기업합병을 통해 나타난 생산성의 설명은 특이한 과점체제의 성립에 도달하는 과정이 일본경제의 산업화를 가져다주었지만 이것은 나중에 일본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의 일익을 담당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⁹⁾ 밝히기도 하였다.

다마가와(玉川寛治)는 물(Mule) 기계로 시작된 일본방적업은 1880년대 후반에 링 방적기계(Ring Spinning Mill)의 선택으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방적업의 기술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면화의 섬유 길이와 방적 기계의 관계의 이해였다. 그것은 가고시마 방적소의 창업으로부터 약 20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되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움직임 중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제 비교 경영사의 방법으로서, 일본방적업내지 일본방적 기업의 특징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시점으로부터, 일본방적업이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 방적국가에 있어서의 방적업과의 산업적 경영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요네가와(米川伸一)는 세계 주요 방적국가에 있어서의 대규모 방적기업의 경영전략과 조직의 설명하며 일본방적업의 능력 구축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¹¹⁾ 즉, 그는 일본의 방적 대기업의 매수 합병에 의한 다수 공장화, 다각화, 해외투자의 적극적인 전개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러한 경영전략의 실현이, 인적자원 관리에 있었다고 결론하고 있다. 즉, 대학 졸업자의 지속적 대량채용, 장기 고용과 교육 훈련에 의한 중간 관리자의 대량의 축적, 그들의 전문 경영자에의 승진이, 이러한 경영전략을 가능케 하였다. 그것이 일본방적업의 우위성의 원천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7) 飯島幡司(1949)『日本紡績史』創元社, pp110-137.

8) 加藤幸三郎(1979)『綿業における技術移転と形態』. 国連大学, pp1-58.

9) 高村直助(1971)『日本紡績業史序説』下巻, 塙書房, pp 210-245.

10) 玉川寛治(2001)「纖維産業」中岡哲郎·鈴木淳·堤一郎·宮地正人編『新体系日本史11 産業技術史』山川出版社, pp130-132.

11) 米川伸一(1994)『紡績業の比較経営史研究 イギリス・インド・アメリカ・日本』有斐閣, pp120-128.

또한, 파니에 와 제레미(Douglas A. Farnie, and David J. Jeremy)는 방적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綿産業의 총체적협력이 영국의 랭카셔(Lancashire)면업에 대해 우위성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방적업의 우위성은 관련 산업과의 사이에 만드는 적극적인 협력의 네트워크에 있었으며, 산지 면직(綿織)산업, 염색(染色)산업과 각종의 면제품 가공업, 무역상사를 시작으로 유통업, 무역환율을 조정하는 은행 등을 보조 산업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 국제 비교에 있어서의 일본방적업의 특징은, 관련 산업의 보완과 협력에 있었기 때문이다.¹²⁾

일본의 면방적업의 발전을 국제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생산성으로 접근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타카무라(高村直助)는 「기계의 생산성」이 면방적업의 기업 간의 이익 격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1905년 이후에는 규모의 경제성이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던 것을 밝혔다.¹³⁾

키요카와(清川雪彦)는 후발국인 일본에서는 기계 방적 도입 후의 빠른 단계에서, 전통적인 물 방적을 이용해 생산하는 것보다도 훨씬 생산성이 높은 최신식의 링 정방적 기계로 생산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중국, 인도 시장)할 수 있어 영국과 경쟁을 할 수 있던 점을 강조 하였다.¹⁴⁾

미야모토(宮本又郎)는 방적업의 발전시기를 1890년대, 1900년대, 1910년대의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 별로 자본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측정하여 그것들과 기술체계, 규모, 임금과의 대응 관계를 정량적으로 설명 하였다. 즉, 미야모토는 1900년대 1910년대에 노동 생산성의 격차가 방적회사 간의 생산 효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던 것을 주장하였다.¹⁵⁾

또한 우시지마(牛島利明)는 1890년대 일본에서의 면사 방적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서 링 방적기(Ring Spinning Mill) 도입 후의 생산성이라고 주장하며 생산성의 향상이 근대 방직기업의 성장요인 이었다고 강조하였다.¹⁶⁾ 헌터(Janet Hunter)도 일본의 근대화과정인 18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의 근대 일본방적업의 발전은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향상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⁷⁾

12) Douglas A. Farnie, and David J. Jeremy (eds.), (2004), The fibre that Changed the World: The Cotton Industr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600-1990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pp170-177.

13) 高村直助, (1971) 『日本紡績業史序説上』, 塙書房, pp190-197.

14) 清川雪彦 (1973) 「綿工業技術の定着と国産化について-日本, 中国およびインド綿工業比較研究: (戦前日本)」 『経済研究』一橋大学, 第24卷, 第2号, 117~137頁, 및, 清川雪彦, (1985) 「日本綿紡績業におけるリング紡機の採用をめぐる-技術選択の視点より-」 『経済研究』一橋大学, 第36卷, 第3号, pp214-227

15) 宮本又郎(1986) 「明治期綿紡績企業の生産性について」 『大阪大学経済学』, 35卷4号. pp12-14.

16) 牛島利明 (1995) 「明治期綿糸紡績業におけるリング紡績機の導入と生産性の上昇: 輸入技術の導入と定着をめぐる予備的考察」 『三田商學研究』38-4, pp63-78.

시마다(島田昌和)는 주식회사 자체는 구미에서 이미 발달한제도 이지만, 구미보다 한참 늦게 근대화에 임하는 일본에 있어서의 선진적인 회사제도의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당시 극히 일부의 미츠이(三井)나 미즈비시(三菱) 등의 재벌을 제외하고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자본과 경영능력을 결집시키는 장치로서 수많은 주주로부터 이뤄지는 주식회사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여 오사카방적의 혁신성을 중요시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뿌리내린 시장거래에 의해 불안정한 주식회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 장치를 추가한 점이 무엇보다도 오사카방적의 혁신 부분 이었다고 주장한다.¹⁸⁾

이와 비슷하게 일본 방적업의 발달을 자금 조달로 설명한 학자는 야마구치(山口和雄)인데 그는 자금조달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행해져 그 자본축적에, 은행, 회사에 의한 신용이 운전 자본으로서 이용되어 그것이 방적업 발전의 불가결한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⁹⁾ 특히 일본의 방적 산업의 형성 확립 독점을 설명하는 논리로서 자금 조달과 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방적업의 발달은 노무관리로 보는 견해. 기술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주식회사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경영체도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혁신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2) 본 연구의 과제와 근대 방적업에서의 기업가정신의 등장

일본 근대화과정에서의 방적기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방적기업의 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다. 확실히 메이지초기의 방적기업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과 두터운 보호를 받았지만 방적기업이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노력과 개선은 있었으나 창조적 혁신 없이는 방적근대화의 성공은 없었다. 그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타카무라(高村直助)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²⁰⁾ 비용 면에서 유리한 중국면화를 원료로 사용한 곳(사카이, 나고야, 타마시마, 미에 방적소 등)과 주야 2교대의 전일조업을 실시하여 가공비체감에 노력한 곳(오사카, 이치가와, 아이치, 오카야마방적소등) 등과 2,000추의 기업규모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설비증가에 노력한 곳(타마시마, 미에, 나고야 방적)등의 기업가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17) Janet Hunter (2006) "Regimes of Technology Transfer in Japan's Cotton Industry, 1860s to 1890s," paper presented at 9th conference of the Global Economic History Network, (Kaohsiung, Taiwan, 9-11 May), pp19-23.

18) 島田昌和 (2007) 『渋沢栄一の企業者活動の研究—戦前期企業システムの創出と出資者経営者の役割』日本経済評論社, pp47-72.

19) 山口和雄編 (1970) 『日本産業金融史研究 紡績金融編』東京大学出版会, pp92-99

20) 高村直助編著 (1992) 『企業勃興』ミネルヴァ書房 pp120-131

그러나, 많은 방적 기업은 방적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비만 투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설비자체가 메이지(明治)정부의 불하(扠下)정책이었으며 게다가 조건인 무이자의 할부금의 납입금조차 내지 못해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은 불충분하여 기업 활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산페이(三瓶孝子)는 이시기의 방적업이 고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계공업에 대한 미경험으로부터 또한 빈민구제 등을 목적으로 했던 점에서 결국은 실패하였지만 그것은 후년의 방적업을 크게 성공시키기 위한 귀중한 경험이었고 이런 점에서 초기의 방적소는 개간사업이었으며 사석(捨石)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²¹⁾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본연구의 과제가 등장 한다. 기업의 경영은 메이지시기의 방적업처럼 일시적인 보호와 국가의 정책만 으로는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초창기에 방적업을 보호하였던 번(蕃)은 1871년에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폐지되어 후원자가 없어져 10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적업이 성장 하기는 충분하지 않았다.²²⁾

다시 말하면 경영은 돈과 기술의 일방적인 투입만 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돈과 기술만 투입하면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상징되는 기업가정신 없이는 기업의 성장은 어렵다. 게다가 방적기계만 구입하여 연료를 투입만 하면 면화는 면사로 되어 팔기만 하면 이익이 된다는 단순한 시스템에서의 메이지 초기의 일본방적업의 성공은 어렵고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³⁾

특히 근대시기의 공업화과정의 사업경영에는 이념과 비전을 가지고 기업발전엔 책임을 지는 기업가 즉,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창조적형태의 조직 혁신가가 필요하다.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의 방적업자들은 수입을 방지하여 殖産興業의 사업을 성공시키려하는 애국적인 이념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으나 미래의 비전을 갖고 창조적인 파괴에 고뇌하는 기업가가 등장하지 않았다. 특히 1880년대부터는 신흥상인과 정상타입의 기업가들도 실업가로 칭하며 시부사와(渋沢栄一)를 모방하거나 협력하였다.²⁴⁾ 특히 나카가와(中川)는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의 내셔널리즘을 통한 조직화된 기업가적 활동에서 시부사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시부사와를 ‘공동사회 중심적기업가’ 로 칭하며 전국적으로 재계를 조직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근대화과정에서의 경제발전에 공동사회에서의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특성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21) 三瓶孝子 (1941) 『日本綿業發達史』, 慶應書房, p56

22) 絹川太一 (1990) 『本邦綿絲紡績史, 第 2卷,』 原書房, pp11-12.

23) W. Miles Fletcher (1996) "The Japan Spinners Association: Creating Industrial Policy in Meiji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2:1 (Winter), pp49--75.

24) J.ヒルシュマイヤー·由井常彦共著 (1977) 『日本の經營發展』 東洋經濟新報社、,p125.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이익을 확보할 수 없었다²⁵⁾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시부사와(渋沢 栄一)만 있었다면 오사카방적은 창립할 수는 있었겠지만 성공하기 어려웠다. 기술자적기업가인 야마노베(山辺 丈夫)의 기업가적사고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웠다. 메이지시대의 산업적 뉴리더의 기술자적사고의 새로운 개념적 특징을 보여준 야마노베는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주야2교대제를 중심으로 혁신적 사고를 이루어 오사카방적 및 주주의 이익에 공헌하였다.²⁶⁾

이시기에 등장한 오사카방적은 창조적(渋沢 栄一)이며 혁신적(山辺 丈夫)인 기업가가 합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여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 오사카방적의 성공에 자극받은 민간 기업이 계속 등장하며 사업화를 계획하여 일본근대화에서의 방적업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존립하고 있는 카네보(1887), 倉紡(倉敷紡績株式会社) (1888) 유니치카(1889) 등은 메이지(明治) 20년대(1887-1896)에 설립된 민간방적기업들 이다. 오사카방적의 성공은 일본근대화과정에서의 방적업의 기업가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 우후죽순처럼 방적기업이 등장하여 일본의 공업화과정에서의 방적업의 기틀을 튼튼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3. 근대일본방적업의 출발

1). 일본의 3개의 방적시조

일본의 방적업은 명치초기까지 외국면세의 수입에 압도되었으나 이것에 대응한 정책으로 번영공장, 모범공장 등으로 방적업이 발생했다. 일본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면방공장으로서 3개의 공장이 열거 된다 즉, 3개의 방적시조로 불리는 三始祖는 가고시마(鹿児島)방적소(가고시마시), 사카이(堺)방적소(오사카부), 카시마(鹿島)방적소(東京都北区)의 3개소이다.

1. 가고시마(鹿児島)방적소와 사카이 방적소

일본에서 최초의 방적공장은 사츠마(薩摩)의藩主人 시마즈 나리아키라 (島津齊彬)에 의해건설 되었던 것은 유명하지만 실제의 공장 건설은 나리아키라의 사후 그 유지를 이은 타다요시(島津忠義)에 의한 것이다. 明治維新전에 서양의 면사가 류큐(琉球)를 거쳐 어용상인 이었던 하마자키(浜岐太平次)가 나리아키라 에 현상한 綿絲(당시 영국의 트롯스르(throstle)사에 제작된 면사)에

25) 中川敬一郎 (1967)日本の工業化過程における組織化された 企業家活動, 『經營史學』, 2卷3號, p36

26) Eugene K. Choia (2009) Entrepreneurial leadership in the Meiji cotton spinners' early conceptualisation of global competition, Business History , Volume 51, Issue 6, pp. 927-958.

대해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것 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당시의 일본의 섬유업의 고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인 교토의 니시진(西陣)에 보내어 감정을 받았지만 면사의 완성도가 너무도 훌륭하여 감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즈음 사즈마(薩摩)의 이시가와 가쿠타로(石河雄太郎)라는 학자가 있었다.²⁷⁾

나리아키라(島津齊彬)는 이 생사와 1권의 양서를 이시가와(石河雄太郎)에게 보내 그 연구를 명령하였다. 나리아키라는 我国(일본)의 고혈을 짜는 것은 이것(생사)이니 부지런히 노력해야 될 것 이라고 말하여 면사가 장래의 일본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나리아키라는 1850년 50세에 세상을 떴으나 이시가와는 그 유지를 이어 타다요시에게 방적공장의 건설계획을 권유해 실행에 옮겼다. 1865년 3월 영국 방적업 시찰단 20명을 편성하여 출발하였다. 당시막부가 해외도항을 금지하고 있던 쇄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명을 사용하여 나가사키를 피하여 가고시마에서 출발하여 66일을 걸려 런던에 도착했다.

니이로 히사노부(新納久修)와 고다이 토모아츠(五代友厚)등은 영국의 맨체스터와 버밍검등 근대적인 공업지대를 시찰하여 유럽에서 7개월을 체류하여 각국의 방적업계를 시찰하는 것 과 함께 영국의 오르담의 플랫폼사에 부탁하여 방적기계의 주문, 공장설계, 그리고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기사 7명의 파견을 요청하였다.²⁸⁾

이러한 노력 끝에 1867년5월 사즈마(薩摩)의 번영(薩摩藩營) 공장으로서 가고시마의 이소노하마(磯ノ浜)에 가고시마 방적소(鹿児島 紡績所)가 설립되었다. 가고시마 방적소의 주요한 기계는 물(mule)600추(錘)가 3대, 트롯스트(throstle) 308추가 6대, 합계 3,648추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방적업의 시조로 불리는 가고시마 방적소는 시마즈(島津)가문의 家産경영의 존재였지만 막말유신기의 격동의 시기에 서양으로부터 이식된 방적기계와 노련한 기사들의 노력에 의해 조업이 시작되었다.²⁹⁾ 그리고 직공양성에 힘써 직공은 200명에 달했으며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으로 규정되어 1일48관의 백목면을 제조했으며 연간 생산고는 6만5,227 단(反)³⁰⁾을 생산하였다고 한다.³¹⁾ 근대적방적기의 초석으로 불리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방출장력이 필요하여 서양면(綿)이 아닌 일본綿(중국면을 포함)을 방적하면 실이 잘 끊어져 생산성이 낮았다. 또한 당초 플

27) 東洋紡績株式会社 (1986) 『東洋紡百年史』 上 ,pp9-12.

28) 松沢弘陽 (1993) 『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経験』 岩波書店. pp50-52.

29) 岡本幸雄 (1976) 「薩摩藩紡績所の技術者・職工」 (秀村選三編 『薩摩藩の構造と展開』,西日本文化協會, pp562-565.

30) 1단은 991,74m²

31) 絹川太一(1990) 『本邦綿絲紡績史,第 1卷,』 原書房, pp114-117.

랫사에서 파견된 7인의 기술자도 2년 계약을 했지만 1년 만에 귀국해버려 충분한 기술을 전수 받지 못하여 발전에 장애가 등장하였다.

사카이(堺)방적공장도 사츠마(薩摩)에 의해 설립되면서 가고시마방적소의 건설을 추진했던 이시가와는 당시의 일본최고의 상업도시인 오사카에의 진출을 도모해 중세이래의 상업의 중심지로 가와치목면(河内木綿)의 산지인 사카이(堺)에 진출하였다. 1868년부터 계획을 진행하여 가고시마로부터 물 2,000추의 방기(紡機)를 운반하여 처음으로 면사(綿絲)를 방출했던 때는 1870년 7월이었다. 동력은 증기기관이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정방기에 대해 생산능력이 떨어질 정도로 결함장비 이었다고 한다.

토지는 和泉国堺戎島 (현재:大阪府堺市堺区戎島町)에 건설되어 에비스지마(戎島) 방적소로 불렸으며 고다이 토모아츠(五代友厚)가 그 관리를 맡았다. 그 뒤 1872년 5월에는 정부(大藏省)에 구입되어 官營模範공장이 된다.

관영모범공장의 사명은 방적기계의 특질을 연구하여 실의 품질향상을 위해 수익을 올려 민간에게 시범을 보이는 것이었다.³²⁾ 변영에서 국가의 관영이 되면서 방적기를 증설하여 정방기와 생산밸런스를 유지하여 소위 2,000추 방적의 모델이 된다.

2. 카시마(鹿島)방적소.

카시마방적은 일본에서의 민간방적의 최초이다 1864년 에도의 물가가 상승하여 시민의생활이 곤란에 빠졌을 때 막부가 물가 하락에 대해 일반의 도매상에 자문했던 적이 있다. 당시의 니혼바시(日本橋)의 텐바구미(伝馬組)의 목면도매상(木綿問屋)의 카시마 만페이(鹿島万平)는 면포류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양식기계로 제사하여 인력을 감축한 대량생산을 진언했다.

1864년에 많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만류하는데도 카시마 만페이는 혼자 힘으로 방적 공장건설에 착수하였다. 사츠마의 시마즈타다요시(島津忠義)가 조사단을 영국에 파견한 전년에 해당되는 빠른 시기였다. 수력에 편리한 동경의 오지(王子)에 공장을 건설하여 운전을 시작한때가 1872년의 겨울이었다.³³⁾

방적기5대는 영국에 주문했지만 도착한 것은 4대였다. 당초의 추수는 576추로 동력은 물레방아를 이용한 남자8인 여자24명으로 조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방적소는 매년 이익을 올리고 있었고 당시의 변영(藩營) 및 官營의 방적이 채산 점에 달하지 않을 때 민영에 의한 경영관리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밀리자 카시마는 소규모의 방적으로는 경쟁에 이

32) 玉川寛治 (2001) 「綿糸紡績技術」 『産業技術史』 山川出版, .p170

33) 瀧野川 (1933) 「鹿島紡績所の創立・經營事情」 『本邦最初の民設紡績工場』. 土屋喬雄 [著]. 東京帝國大學經濟學會 을 참조

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1888년에 동업자를 모집하여 도쿄방적주식회사(東京紡績株式会社)를 설립하였다.

가고시마, 사카이, 카시마 등 3시조 紡績所에 대해 사이구사(三枝博音)³⁴⁾는 가고시마 방적소는 기록상으로는 일본기계방적공장의 시조라고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본방적업의 원류는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타카무라(高村直助)도 방적업의 시조라 불리는 3개의 紡績所는 어느 것이나 후일 기계제방적업의 형성에 연결되지 못하여 단절된 존재³⁵⁾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고 기술도 자본도 정보도 없었을 때에 가고시마 방적소의 설립은 경영사적인 면에서 보면 일본방적업의 등대라고 할 수 있다.

2). 메이지(明治) 정부정책으로서 이천추 방적(二千錘紡績)의 등장

아이치(愛知)紡績所에 이어 정부는 기업자금을 민간에 빌려 관영 방적소와 같은 규모의 방적소를 10개소 창설했다 이것이 소위 십기방(十基紡)이라고 불리고 있다. 관영(官營) 방적소는 정부 등의 자금원조에 의한 것이었다. 이 방적소 들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는 사카이방적소의 방적기계설비를 모델로 한 것으로 2천추방적 으로 불리고 있다.

일본의 면방업계가 확립되기 직전의 단계 즉 1882년(明治15년)부터 1887년(明治20년)에 걸쳐서 정부의 殖産興業政策으로서 이천추 방적(二千錘紡績)이 건설되었던 단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천추방적은 메이지(明治) 20년(1887년)경에서부터 시작한 일만추(一万錘)규모의 동력으로 증기기관을 사용한 방적공장과 비교해볼 때 수력(水力)을 이용하여 규모적으로 과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타카무라(高村直助)는 정부의 보호 유성의 자체에도 이천추 방적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존재했다고 하고 있다³⁶⁾ 이천추방적의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대로 부진을 계속하여, 한편으로는 1883년 개업의 일만추 규모의 오사카 방적회사가 초기에 좋은 성적을 달성해 민간에서도 이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1886년에 이르러 이천추방적 육성정책은 최종적으로 포기 되었을 정도이다. 이천추방적의 대부분이 부진으로 끝난 이유로서 종래 (1)추수(錘數)규모의 문제 (2)수력이용의 한정성 (3)면작(棉作)과 수력이용에 관련한 입지조건 제약성 (4) 기술, 특히 기술자의 결핍 등이 지적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³⁷⁾

메이지(明治)정부는 서남전쟁(西南戦争)³⁸⁾후 면방업의 자립화를 위해 본격적

34) 三枝博音 野崎茂 佐々木峻 (1960) 『近代日本産業技術の西歐化』 東洋經濟新報社 p136

35) 高村直助著 (1971) 『日本紡績業史序説 上』, 塙書房刊, p39.

36) 高村直助 (1971) 『日本紡績業史序説 上』, 塙書房, pp.42-45

37) 高村直助 (1971) 전계서 pp44-45.

38) 1877년(메이지 10년)에 현재의 구마모토현·미야자키현·오이타현·가고시마현에 있어 사이고

인 육성정책을 계획했다. 육성정책은 영국으로부터 방적기계를 수입하여 그것을 토대로 관영공장을 건설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부가 구입했던 방적기계를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받는 것이었고, 세 번째 방적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이중에 관영공장은 아이치(愛知)방적소와 히로시마(広島)방적소로서 2,000추의 방적소를 설립하여 이것을 모범으로 다수의 민간 방적소가 설립될 것을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원료인국내의 면화생산의 가격하락을 저지할 목적으로 세워져 관영모범공장(官營模範工場)으로 불리고 있다. 메이지 정부의 계획에서는 이들이 초기방적공장으로서 위치되어 언젠가 민간에 불하할 것을 예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적업육성의 제2방법은 2,000추 방적소의 설립과 함께 메이지정부가 영국에서 구입한 방적기계 10기를 무이자10년 할부로 민간에 불하하는 방법이었다. 1880년(명치13년)부터 1882년(명치15년)까지 이 방법으로 9방적소가 설립되었다. 그 외에 민간이 수입하는 방적기계의 대금을 정부가 입체(立替)하는 것을 이행하는 立替紡으로 불린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桑原방적소, 宮城방적, 名古屋방적등 세 방적소가 설립되었다.

1878년의 수입총액은 3,287만 엔으로 그중에 면직물은 오천만 엔이고 면사는 720만 엔으로 둘을 합치면 일본의 수입품의 4할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에 있어서 화폐유출방지를 위해서도 면제품의 수입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1879년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수입방적기의 불하(払下)희망자를 모집했는데 이익과 관계가 있으므로 다수의 응모가 있었다. 1880년 정부는 정치적인 협력관계와 기업화의 가능성 등을 토대로 10기방의 불하처를 결정했다. 불하를 받은 자는 伊藤伝七(三重방적소), 揮大坊矣二郎(下村방적소), 鈴木久一郎(島田방적소), 栗原信近(市川방적소)등이다.³⁹⁾

(표1)의 십기방의 개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00추로서 동력은 수력과 증기기관으로 나누어 조업을 하였지만 사가(佐賀)물산회사는 조업을 포기하여 1884년 타마시마(玉嶋)방적소에 기계를 매각하였기 때문에 타마사키 방적소만이 4,000추의 규모 이었다.

다카모리(西郷隆盛)를 맹주로 해 일어난 사족에 의한 무력 반란이다. 메이지 초기의 일련의 사족 반란 중 최대 규모로 일본 마지막 내전.

39) 櫻谷勝美 (1988) 『二千錠紡績』の苦闘：三重紡績所の場合』 三重大学人文学部.pp28-30.

(표1) 십기방의 개황

기업명	소재지	추수	조업개시년도	동력	발기인의 직업
玉嶋紡績所	岡山縣	2,000	1882년1월	증기기관	은행지점장
市川방적소	山梨縣	2,000	1882년3월	수력	부농
三重방적소	三重縣	2,000	1882년9월	수력	제조업
下村방적소	岡山縣	2,000	1882년12월	증기기관	소금도매업
豊井방적소	奈良縣	2,000	1883년12월	수력	관리
島田방적소	静岡縣	2,000	1884년3월	수력	부면장
遠州 방적소	静岡縣	2,000	1884년11월	수력	지주
長崎 방적소	長崎縣	2,000	1885년	증기기관	무역상
下野 방적소	栃木縣	2,000	1885년1월	수력	양잠업
佐賀物産	佐賀縣	2,000	해체		사족집단

자료: 絹川太一, 『本邦綿絲紡績史, 第2,第3卷』, 原書房, 1991.

정부주도하의 2,000추(鍾) 규모의 10기(基) 방적의 대부분의 경우 일본의 방적 공업의 기초를 배양하는 데는 적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10기 방적의 대부분은 경영의 실패에 그쳤다.

그 이유는 토가이(梅井義雄)의 주장처럼 첫 번째 이들의 대부분은 2,000추라는 소규모적인 것이었다.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는 원동기인 수력(물레방아)을 사용했지만 설치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고 수량(水量)에 좌우되어 운전이 불균등하게 되고 고장이 잦았다. 세 번째는 국산면화의 장려를 목적으로 재래의 면작지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좋을 수가 없었다. 40)

또한 타카무라(高村直助)⁴¹⁾도 (1)설비규모의 감소 (2)원동력의 수력이용의 한정성 (3)棉作地와 수력을 너무 중시하였던 공장입지 조건의 제약성 (4)기술자의 결핍 (5)자금조달의 부족 등으로 인한 초창기의 방적 기업의 다수를 점유한 2,000추(鍾) 방적에는 한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00추 방적은 경영에는 실패했지만 그 후 민간의 방적회사 설립 시에 조업에 필요한 방적기술의 습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여 洋式방적 기계의 발전을 지지하는 기둥이 되었다고 하겠다. 즉, 기누가와(絹川太一)⁴²⁾의 지적처럼, 2,000추의 규모설정과 수력의 선택 등은 오로지 정부에게 책임을 돌려하지만 이 시기의 방적업이 많은 교훈을 제공하여 후일 방적업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적, 경영적 곤란을 극복한 증기력의 이용에 의한 1만추 규모의 오사카방적의 창립이었다. 정부주도하의 10

40) 梅井義雄 (1970) 『日本産業.企業史概説』, 稅務經理協會, p74.

41) 高村直助 (1971) 『日本紡績業史序説上』, 塙書房, p45.

42) 絹川太一 (1990) 『本邦綿絲紡績史, 第3卷』, 原書房, p416.

기 방적(2,000추 방적)이 실패한 것에 대해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은 순수민간의 오사카방적의 성공을 계기로 대규모 방적회사의 계속된 출현은 일본의 산업혁명개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

4. 오사카방적(大阪紡績)의 등장

자본주의의 전제가 되는 원시적 축적이 최종 국면을 맞이하고 있던 1880년 전후의 일본에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한 유력 기업의 설립이 계속 이루어졌다. 1879년에는 동경해상 보험이 1881년에는 일본 철도가, 1882년에는 오사카 방적이 각각 설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선구적 사례의 성공은 주식회사 제도에의 신뢰를 높여 1886년부터 1889년에 걸친 4년간에는 주식회사제도를 이용한 보험회사, 철도회사, 방적회사 등의 창업 붐 이른바 「企業勃興」이 등장하였다.⁴³⁾

이 기업 발흥은, 1890년 공황에 의해서 좌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일본에서도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기업 발흥에 이어 1890년 공황(恐慌)이 생긴 것은, 일본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했다. 한 국가 레벨로 자본주의가 확립하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일본의 산업혁명은, 영국보다 100년 이상 늦게 1880년대에 출발하게 되었다. 일본과 같은 후발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거셴크론(Alexander Gershenkron)의⁴⁴⁾ 주장처럼 한편에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신에, 다른 한편에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압력의 아래에서 공업화를 달성하여야만 한다는 문제가 등장한다. 후발국은 노무비가 낮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본 집약적인 중공업에서는, 선진국으로 부터의 수입 압력은,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한다.

따라서 후발국의 산업혁명이 완료하기 위해서는 ①섬유 공업 등의 경공업으로 기계제 공장 생산이 확립할 뿐만 아니라 ②경공업이 수출 산업화해 중공업 제품 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증하게 되어 ③철강업 등의 중공업 자체의 국산화의 전망을 예상하고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①의 섬유 공업 등의 경공업으로 기계제 공장 생산이 확립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오사카 방적이, 1883년에 1만 500추 규모의 대형 공장의 조업을 개시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43) 高村直助編(1993)『企業勃興—日本資本主義の形成』. 岩波書店. 을 참고할 것.

44) Alexander Gershenkron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 a book of essays. Frederick A. Praeger, pp27-42.

되었다. ②의 경공업이 수출 산업화해 중공업 제품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충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1897년에 면사의 수출량이 수입량을 능가해, 1900~05년의 시기에 生絲 수출이 급증하면서 산업화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본장에서는 ①과 ②의 부분을 오사카방적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와 야마노베 다케오(山辺丈夫)를 중심으로 그들의 기업가적 발상을 통한 오사카방적의 성장을 보기로 한다.

1).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의 기업가적 발상.

일본에 근대적 섬유 산업이 도입된 것은 1882년이며, 현재의 도요보(東洋紡)전신인 오사카 방적(大阪紡績)이 그 당시에 설립되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방적은 대단히 큰 산업이었다. 생사(生絲:絹絲)는 1872년 관영 도미오카 제사장(官営 富岡 製絲場)으로 대표되듯이 많은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그 당시의 섬유 산업은 오늘날의 하이테크(hightech) 산업과 같았다. 시부사와 에이치는, 해외 제품에 대항하면서, 근대 방적업을 사업으로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10,000추 규모 이상의 공장을 건설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시부사와의 구상은 오사카 방적으로서 실현된다.⁴⁵⁾ 오사카방적회사는 정부로부터의 원조를 받는 일 없이, 완전한 민간자본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오사카 방적회사는 1882년 7월에 第一国立銀行 총재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를 발기인으로 하고 주주는 마에다(前田)등 21명의 화족(華族)⁴⁶⁾등을 설득한 자금 10만 6,500엔과 오사카의 금융업자 후지다(藤田伝三郎)와 스미토모(住友徳佐衛門) 등의 광산업자 등의 56인의 8만 6,500엔을 포함한 (당시로서는 대자본이라 할 수 있는) 자본금은 25만 엔 이었다.

특히 2,000추의 10기 방적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 점과 자금 조달 등에 의해 성공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수력대신에 증기력 이용에 의한 1만 500추(錘) 규모와 주식회사제도를 도입했다는 점⁴⁷⁾은 구미기술의 채용에 의한 근대공업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기방(基紡)의 정부 의존에 의한 기업과는 달리 정부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대규모 민간자본으로서 발족된 일본최초의 방적주식회사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시부사와 에이치는,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弥太郎)와 같은 자본가 경영자도 아니었고, 나카미가와 히코지로(中上川彦次郎)와 같은 전문 경영자도 아니었다. 시부사와의 기업가 활동에 대해 시마다(島田昌和)는, 시부사와 에이치는 「출자자 경영

45) 三好信浩著 (2001) 『渋沢栄一と日本商業教育発達史』 風間書房 참조

46) 작위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 메이지 초기에 시작되어 1947년에 폐지

47) 松井幹雄 (2005) 『日本紡績業における生産システムの形成. -国際比較の視点を考慮して-』 東京大学ものづくり経営研究センター, 3月, pp3-4.

자」였다고 하는 주목해야 할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⁴⁸⁾ 시부사와 에이치는 1873년에 제일 국립은행의 총감역으로 취임해, 2년 후의 1875년에는 총재가 되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하고, 1890년대부터 1900년대에 걸쳐, 도쿄 가스, 日本煉瓦製造, 도쿄 제철, 교토 직물, 도쿄 인조비료, 도쿄 이시카와 조선소, 테이코쿠 호텔, 오지제지, 이와키 탄광, 히로시마 수력전기, 삿포로 맥주 등의 주식회사의 회장을 역임했다. 또, 일본의 공업화·근대화를 선도한 오사카 방직, 일본철도, 동경해상 보험, 日本郵船등의 대기업의 설립에도 관여해, 이곳의 임원으로서도 활약했다.

민간기업가로서의 시부사와의 기업가적 발상은 겐조(見城悌治)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合本主義」⁴⁹⁾였다. 「합본주의」란 「한 개인 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풍부할 필요」라는 가치관에서, 회사의 전체가 풍부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제도에 볼 수 있는 「합본법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발상이었다.⁵⁰⁾

시마다(島田昌和)에 의하면,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의 기업가적 활동은, (1) 다수의 근대적인 회사를 병행해 설립하여, (2) 장기적 관여가 요구되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에 관련하는 산업이나 근대화에 필요점인 산업을 궤도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두 개의 측면을 갖고 있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배당을 높여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한 뒤에 새로운 회사의 설립 하는 메카니즘인데 「재력을 동반한 기업가적 인맥의 활용⁵¹⁾하는 것으로 일본근대화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했다⁵²⁾고 하겠다.

또한, 메이지시대의 기업에 관한 전문기술자의 부족시의 오사카방직의 성공은 근대일본의 방직업의 발전을 촉진 할뿐 아니라 근대 비즈니스에서도 지역 엘리트와 전통상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⁵³⁾

한편, 시부사와(渋沢栄一)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장의 규모나 자금뿐만이 아니고, 기술이나 경영의 지도자에게 적절한 인재를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시부사와는 10기방(基紡)의 실패를 염두해 두고 방직업의 경영 기술에 관한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경제학 연구 목적으로 영국 유

48) 島田昌和 (2007) 渋沢栄一の企業者活動の研究—戦前期企業システムの創出と出資者経営者の役割—』日本経済評論社, pp47-52.

49) 개인의 작은 돈이 모여 큰 자금이 되어 대사업도 움직이는 은행이나 주식회사의 구조

50) 見城悌治(2008) 『評伝日本の経済思想 渋沢栄一「道徳と経済のあいだ」』日本経済評論社, p63

51) 島田(2007) 전제서, 第 1 章. 참조.

52) Tai, Kuo-hui (1993). "Confucianism and Japanese Modernization: A Study of Shibusawa Eiichi," in Subhash Durlabhji and Norton E. Marks, eds., Japanese Business: Cultural Perspectiv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pp.43-56

53) Geoffrey Jones(1996), -Diversification Strategie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Trading Companies: Anglo-Japanese Comparisons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usiness and Economic History, 25. p109.

학중의 야마노베 다케오(山辺丈夫)에게 자본금 중에서 연구비 150파운드(1,500엔)를 송금하여 실무를 공부시켰다. 그는 경제학을 포기하고 맨체스터 공업학교에서 방적업을 배우고 방적공장에서 실무의 경험을 익히고 귀국하였다.

나카가와(中川敬一郎)는 「일본의 공업화 과정에서의 「조직화된 기업」」 중에서 시부사와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우선 「메이지(明治)기의 일본의 企業家가, 근대산업의 건설에 극히 필요한 것, 즉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근대적인 산업기술이나 경제제도, 경영 조직 등을 열심히 도입한 것 등은, 시부사와의 기업가적 활동에 가장 뛰어난 업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異論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해 근대 산업에의 이해와 그 도입에의 혁신성의 자세를 논하고 있다⁵⁴⁾

유이(由井常彦)와 히르슈마이어(Johannes Hirschmeier)의 주장은 시부사와(渋沢栄一)가 「이상주의자의 측면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감각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긴밀히 협력해, 제일 국립은행을 시작으로 스스로가 수많은 회사 기업, 금융기관 혹은 비즈니스 단체의 설립 주도권을 잡아, 인정을 받는 「実業家」의 모델이 되어 「재계」를 조직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의 전통적인 士族(무사)의 이념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합친 경영내셔널리즘을 주장하여 「도덕경제합치설」과 「경영논어」등을 주장하였다.⁵⁵⁾ 따라서 신흥 상인이나 정상 입의 기업가도 1880년대 말 무렵부터는 「실업가」가 되고 싶어 많은 적든, 시부사와를 모방하거나 그에게 협력하거나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⁵⁶⁾

2) 야마노베 다케오(山辺 丈夫)의 혁신적 사고

피터 드러커(Peter Druker)는 일본에서의 시부사와의 오사카방적을 평가하며 「오사카에 방적 공장을 만들었을 때에도, 거기에는, 근대적인 증기 기관을 가동시키거나 상품을 팔거나 디자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인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 오사카의 방적 공장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며, 내가 아는 한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메이지기에서의 큰 사건의 하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⁵⁷⁾

어떻게 시부사와는, 오사카 방적을 성공으로 이끌었는가? 드러커가 지적하듯이, 어떻게 경영자를 찾아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런던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있던 28세의 청년에게 방적 기술의 습득을 의뢰해, 모든 사람이 놀랐던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청년에게 연구비 1,500엔(150파운드)을 송금했다. 당시의 1,500엔 이라고

54) 中川敬一郎(1967) 「日本の工業化過程における組織化された企業者活動」 『経営史学』2卷3号,p19.

55) 이덕훈 (1998) 「근대일본기업가와 무사정신의 변용-일본무사의 기업가로의 전환과정-」 『한일경상논집』 제16권,pp175-177

56) J·히르슈마이어·由井常彦 (1977) 『日本の経営発展』東洋経済新報社, p125.

57) NHKスペシャル (2005) 『明治1-変革を導いた人間力』NHK出版. pp7-13.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기 때문이다. 이 청년이 야마노베 다케오 (山辺 丈夫)이다.

야마노베는 1877년 9월 런던대학의 로얄 아카데미 에 입학한다. 경제학에 심취되었던 그에게 1879년 4월 면식도 없는 시부사와 로부터 일본의 미래를 위해 영국에서의 방적업의 연구를 원한다는 서신을 받고 고민 끝에 킹스 칼리지에 편입하면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게 된다.⁵⁸⁾

시부사와로부터 비용의 원조를 받아 맨체스터에서 공장 견학이나 실습을 했다. 1880년 7월 영국의 방적 기계, 증기 기관 등을 사갖고 귀국 하였다. 시부사와를 면담, 보고 후에 오사카방적의 창립에 참여한다. 후에 마츠모토 주타로(松本重太郎) 등의 협력 하에 1883년 설립의 오사카 방적 회사의 공무 지배인으로 취임한다.⁵⁹⁾

그는 영국유학의 경험을 살려 기술적으로 2가지의 점에서 2,000鍾방적과 다른 특색으로 접근하였다. 하나는 수력대신에 증기기관으로 바꾼 점과 또 하나는 일본인 기술자를 양성하였다는 점이다.⁶⁰⁾ 오사카방적은 공장입지를 면화산지에 가까운 곳으로 할 것 인가 와 수력동력을 이용하려면 하천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수력의 건설비가 저렴하므로 수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으나 야마노베와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하여 증기를 동력으로 정하였다. 공장 건설 장소를 오사카부(大坂府) 니시나리(西成)로 정하도록 건의 하였으며 기계류는 영국의 플랫폼, 하그리브스 두 회사의 제품을 미츠이 물산(三井物産)을 통해서 주문하고 정방기(精紡機)는 물(mule)방식을 채용했다.⁶¹⁾

오사카 방적의 경영상 특필할만한 점은 주야 2교대제와 공장의 전등 채용이었다. 주야 2교대제가 채택된 것은 모든 기계를 수입에 의존, 설비 자금이 영국에 비해 2배나 들었던 일본에서는 2배 이상 일하지 않으면 경영관리가 될 수 없었던 점이다.⁶²⁾ 풍부한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계의 회전시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함으로써 이익률의 증가를 꾀하려고 한 주야 2교대제는 일본방적업계의 상식이 되었을 만큼 혁신적사과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는 시부사와의 주식회사도입등 주야 2교대제의 경영적인 면과 야마노베의 증기력도입, 공장의 전등채용 등의 혁신적이라 할 수 있었던 기술적인 면이 결합된 근대기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⁶³⁾

58) 山崎 泰央 (2012.10) 「紡績業の発展を支えた技術企業家—山辺丈夫と菊池恭三—」, WORKING PAPER SERIES, 日本の企業家活動シリーズ(No.57).The Research Institute for Innovation Management, HOSEI UNIVERSITY, pp3-4.

59) 梶西 光速 (1950) 日本近代綿業の成立, 經濟選書, pp69-89.

60) 古島敏雄 (1985) 體系日本史叢書12, 産業史3,,p264

61) 松井幹雄 (2005) 『日本紡績業における生産システムの形成. —国際比較の視点を考慮して—』 p7

62) 渋沢栄一伝記資料刊行会刊 (1955) 『渋沢栄一伝記資料』 第10卷, pp54-58.

63) Ken"ichi Yasumuro (1993) "Engineers as Functional Alternatives to Entrepreneurs in Japanese Industrialization," in Jonathan Brown and Mary B. Rose,

오사카방적의 제일 주목 받았던 시기가 기업창설로부터 최초의 7년간 이다. 여기에서 방적업 초창기에 설립되었던 정부와 번의 선도했던 기업이 경영에 고뇌하고 있던 때에 오사카방적은 하나의 예외로서 극히 순조로웠던 단계였다고 하겠다.

조업을 개시하던 다음 달인 1883년 8월에는 빠르게 심야조업을 간행하여 1884년에는 전기계의 운전이 성공하였다. 이천추방적과는 다른 의미에서 노동력의 제공부분에서 혜택을 받은 점도 심야조업의 성공요인이 되었다.⁶⁴⁾ 1886년 9월에 자가발전이 의한 전기조명에 돌입하여 자본-노동비율을 주간조업의 반으로 올려 오사카방적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방적업의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⁶⁵⁾ 또한, 20,820추의 증설을 할 때 야마노베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링 정방기 4,020추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였다.⁶⁶⁾ 링 정방기는 영국의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1850년경 제작된 것인데 영국에서는 1873년 실용화에 들어가면서 추의 회전수가 빠르고 물 방적기에 비교하여 생산성이 훨씬 높았다.⁶⁷⁾

야마노베는 링 방적기의 도입을 결단하여 1889년에는 다시 링 정방기 30,000추로 증설을 하여 1889년에는 6만추 넘어 6년전 보다 5.84배로 증가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보수적인 영국의 방적회사들은 물 방적기로 고집하여 나중에 일본에게 역전당하는 계기가 된다. 야마노베의 이 같은 혁신적 전환은 설립 후 7년 사이에 설비 매출액에서는 5.5배로 증가하였고 자본금은 4.5배, 종업원은 9.4배의 눈부신 성장을 보였다.(표2참조).

(표2) 오사카방적의 업적

	1883년	1889년	비교 (배)
설비 수(추)	10,500	61,320	5.84
매출액 (엔)	248,800	1,372,600	5.5
자본금 (엔)	265,000	1,200,000	4.5
종업원 (인)	288	2,709	9.4

자료:山口和雄編著(1970) 『日本産業金融史研究 紡績金融篇』 東京大学出版会..p335

오사카 방적회사는 1883년 하반기 배당률이 6%, 1884년 18%, 1888년 36%라는 고율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자본금도 창립당시 25만 엔을 불과 4년 뒤인 1887년 5배로 늘어났으며 추수(錘數)도 불과 6년 뒤인 1889년 6만 1,320추로,

Entrepreneurship, Networks, and Modern Busines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91-92

64) 高村直助 (1971) 『日本紡績業史序説上』, pp80-81.

65) 中村 隆英 (1979) 『日本經濟-その成長と構造』, 東京大学出版会., p83

66) 庄司, 乙吉 . 宇野, 米吉 (1918) 『山邊丈夫君小傳』, 紡織雜誌社編輯, 紡織雜誌社, p9.

67) 中岡哲郎, 石井正 内田星美 (1986) 『近代日本の技術と技術政策』 國際連合大学, p98.

5.4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시기에 종업원도 9.4배가 증가하여 말 그대로 근대 주식회사의 개념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68)

이 기간에 사장이 후지다(藤田伝三郎)에서 마츠모토(松本重太郎)로 바뀌었지만 야마노베는 공무지배인 지사장으로서 공장설비의 관한 증설과 첨단화, 조업의 효율화를 감행하여 업적의 향상에 노력했다. 이시기의 야마노베의 기업가적 혁신은 초기산업주의 일본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자적 혁신이었다.

(표3)의 방적회사의 규모의 증가를 보면 나타나듯이 오사카방적의 설립2년후인 1885년에는 22개사의 회사당 추수는 3천3백추 였지만 10년 뒤인 1895년에는 47개사의 회사당 추수는 1만2천400추를 기록하였으며 5년 뒤인 1900년에는 79개사, 1개회사당 평균 추는 1만4천2백 추이었으나 1905년에 이르자 합병 등이 이루어지면서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1회사당평균추가 2만9천추 로 비약하여 규모의 경제의 입장에서 일본은 점점 더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오사카방적의 눈부신 성공은 일본방적업의 규모적 확대의 필요성과 지방의 상인들까지 기술도입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3) 방적회사의 규모증대

(단위 : 1,000추)

년도	회 사 수	추 수	1 사 당 추 수
1880	5	13.2	2.6
1885	22	71.6	3.3
1890	30	277.8	9.3
1895	47	580.9	12.4
1900	79	1,135.1	14.2
1905	49	1,426.5	29.1
1910	36	2,099.7	58.3
1913	44	2,414.4	54.9
1920	56	3,813.5	68.1
1925	64	5,447.1	85.1

자료: 内外綿業年鑑(1931년)

상술한 바와 같이 오사카방적의 성공은 사족과 상인들의 방적업에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1887년부터 1891년의 4년 사이에만 鐘淵, 東京, 平野, 浪華, 金巾, 天滿, 尾張, 三池등을 비롯하여 1만추규모의 방적회사가 20여개나 설립되게 하

68) 藤井光男 (1982) 『経営史-日本-』, 日本評論社,, p73

여 일본방적업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⁶⁹⁾

또한 오사카방적의 과점적 지위를 살펴보면 1887년의 오사카방적의 면사생산량이 전국 19개소의 방적소의 46.4%를 차지한 것을 보면⁷⁰⁾ 당시 오사카방적이 최신시설 비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당시의 근대방적업에서의 오사카방적의 위치를 알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성공은 야마노베의 기술자적 기업가정신 없이는 이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5. 맺는말

일본의 산업혁명기에 있어 방적업은 근대화의 주축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 최초의 서양식 방적 공장은, 1867년에 준공한 사츠마(薩摩)번(藩)에 의해 운영된 사츠마 번영(薩摩藩營)의 가고시마(鹿兒島)방적소와 사카이 방적소이다. 한편 민간인에 의한 방적공장은 1871년에 카시마 만페이(鹿島万平)가 창업한 카시마(鹿島)방적소가 조업을 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술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했다.

거액의 면사 수입액에 위기감을 느낀 메이지 정부는 수입 방지를 목적으로 근대적인 기계 방적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즉 (1). 관영공장의 설립, (2). 정부 구입의 방적 기계를 불하 (3). 방적 기계의 수입 대금의 立替 등을 중심으로 殖産興業정책으로 2,000鍾 방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10기 방적이 등장했지만 이것 역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실패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경영적 곤란을 극복한 증기력의 이용에 의한 1만추 규모의 오사카방적의 등장이었다. 정부주도하의 10기 방적(이천추방적)이 실패한 것에 대해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은 순수민간의 오사카방적의 성공을 계기로 대규모 방적회사의 계속된 출현은 일본의 산업혁명개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

오사카 방적회사는 1882년 7월에 第一国立銀行 총재 시부사와 에이치(渋沢栄一)를 발기인으로 하고 주주는 前田등 21명의 화족(華族)등을 설득한 자금 10만 6,500엔과 오사카의 금융업자 후지다(藤田伝三郎)와 스미토모(住友佑佐衛門)등의 광산업자들을 포함한 56인의 8만 6,500엔 등을 포함한 자본금은 25만 엔으로 시작한 주식회사 이었다. 특히 2,000추의 10기 방적이 자금 조달 등에 의해 성공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수력대신에 증기력 이용에 의한 1만500추(鍾) 규모와 주식회사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근대공업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69) 김종현 (1991) 『근대 일본경제사』, 비봉출판사, p69.

70) 高村直助 (1972) 『日本紡績史序説』 pp208-209

그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사카 방적의 경영상 특필할만한 점은 주야 2교대제와 공장의 전등 채용이었다. 그리고 주야 2교대제가 채택된 것은 모든 기계를 수입에 의존, 설비 자금이 영국에 비해 2배나 들었던 일본에서는 2배 이상 일하지 않으면 경영관리가 될 수 없었던 점이다. 이것은 야마노베 다케오의 혁신적사고인데 풍부한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기계의 회전시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함으로써 이익률의 증가를 꾀하려고 한 주야 2교대제는 일본방적업계의 상식이 되었을 만큼 혁신적사고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는 시부사와의 주식회사도입등 주야2교대제의 경영적인 면과 야마노베의 증기력도입, 공장의 전등채용 등의 혁신적이라 할 수 있었던 기술적인 면이 결합된 근대기업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오사카방적의 성공은 단순한 하나의 회사의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방적업에 뛰어들게 하여 1887년부터 1891년의 4년 사이에만 鐘淵, 東京, 平野, 浪華, 金巾, 天滿, 尾張, 三池등을 비롯하여 1만 추규모의 방적회사가 20여개나 설립되었다.

오사카방적은 특히 메이지시기의 상업자본이 산업자본화한 최초의 산업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⁷¹⁾ 이를 가능케 했던것은 시부사와(渋沢)의 주식회사의 개념을 도입한 혁신적사고와 야마노베(山辺 丈夫)의 기술자적사고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방적에서의 역할을 오케스트라에 비추어보면 시부사와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야마노베는 연주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야구로 보았을 경우 시부사와는 감독을 야마노베는 코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종현 (1991) 『근대 일본경제사』 비봉출판사 ,p69.
- 이덕훈 (1998) 「근대일본기업가와 무사정신의 변용-일본무사의 기업가로의 전환과정-」 『한일경상논집』 제16권, pp175-177
- 三瓶孝子 (1941) 『日本綿業發達史』 慶応書房, pp12-21.
- 飯島幡司 (1949) 『日本(紡績史)』 創元社,pp110-137.
- 加藤幸三郎 (1979) 『綿業における技術移転と形態』 . 国連大学,pp1-58.

71) 山田盛太郎,(1982) 「工業資本主義における端初的諸形態」 『日本資本主義發達史講座』 岩波書店 ,p5

- 高村直助 (1971) 『日本紡績業史序説』 下卷、塙書房, pp 210-245.
- 間宏 (1964) 『日本勞務管理史研究 経営家族主義の形成と展開』ダイヤモンド社, pp210-217.
- 玉川寛治 (2001) 「纖維産業」中岡哲郎・鈴木淳・堤一郎・宮地正人編 『新体系日本史11 産業技術史』山川出版社, pp130-132.
- 米川伸一 (1994) 『紡績業の比較経営史研究イギリス・インド・アメリカ・日本』有斐閣, pp120-128.
- 高村直助, (1971) 『日本紡績業史序説上』塙書房, pp190-197.
- 清川雪彦 (1973) 「綿工業技術の定着と国産化について-日本, 中国およびインド綿工業比較研究: 戦前日本」 『経済研究』一橋大学, 第24卷, 第2号, 117~137頁.
- 清川雪彦, (1985) 「日本綿紡績業におけるリング紡機の採用をめぐる-技術選択の視点より-」 『経済研究』一橋大学, 第36卷, 第3号, pp214-227
- 宮本又郎(1986) 「明治期綿紡績企業の生産性について」 『大阪大学経済学』 35卷4号. pp12-14.
- 牛島利明 (1995) 「明治期綿糸紡績業におけるリング紡績機の導入と生産性の上昇: 輸入技術の導入と定着をめぐる予備的考察」 『三田商学研究』 38-4, pp63-78.
- 島田昌和 (2007) 『渋沢栄一の企業者活動の研究-戦前期企業システムの創出と出資者経営者の役割』日本経済評論社, pp47-72.
- 山口和雄編 (1970) 『日本産業金融史研究 紡績金融編』東京大学出版会, pp92-99
- 高村直助編著 (1992) 『企業勃興』ミネルヴァ書房 pp120-131
- 三瓶孝子 (1941) 『日本綿業発達史』, 慶応書房, p56
- 絹川太一 (1990) 『本邦綿糸紡績史, 第 2 卷,』 原書房, pp11-12.
- J.ヒルシュマイヤー・由井常彦共著 (1977) 『日本の経営発展』 東洋経済新報社、, p125.
- 東洋紡績株式会社 (1986) 『東洋紡百年史』上 .pp9-12.
- 松沢弘陽 (1993) 『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経験』 岩波書店. pp50-52.
- 岡本幸雄 (1976) 「薩摩藩紡績所の技術者・職工」 (秀村選三編 『薩摩藩の構造と展開』, 西日本文化協会, pp562-565.
- 絹川太一(1990) 『本邦綿糸紡績史, 第 1 卷,』 原書房, pp114-117.
- 玉川寛治 (2001) 「綿糸紡績技術」 『産業技術史』山川出版, p170
- 三枝博音 野崎茂 佐々木峻 (1960) 『近代日本産業技術の西欧化』 東洋経済新報社 p136
- 高村直助 (1971) 『日本紡績業史序説 上』, 塙書房, pp.42-45
- 桜谷勝美 (1988) 『二千錘紡績』の苦闘: 三重紡績所の場合』 三重大学人文学部. pp28-30.
- 梅井義雄 (1970) 『日本産業. 企業史概説』, 税務経理協会, p74.
- 高村直助 (1971) 『日本紡績業史序説上』, 塙書房, p45.
- 三好信浩著 (2001) 『渋沢栄一と日本商業教育発達史』 風間書房 査叢
- 松井幹雄 (2005) 『日本紡績業における生産システムの形成. -国際比較の視点を考慮して-』 東京大学ものづくり経営研究センター. 3月, pp3-4.
- 島田昌和 (2007) 渋沢栄一の企業者活動の研究-戦前期企業システムの創出と出資者経営者の役割-』日本経済評論社, pp47-52.
- 見城悌治(2008) 『評伝日本の経済思想 渋沢栄一 「道徳と経済のあいだ」』日本経済評論社、p63
- 中川敬一郎(1967) 「日本の工業化過程における組織化された企業者活動」 『経営史学』 2卷3 号, p19.

- ・ J・ヒルシュマイヤー・由井常彦 (1977) 『日本の経営発展』 東洋経済新報社, p125.
- ・ NHK スペシャル (2005) 『明治 1 ― 変革を導いた人間力』 NHK 出版. pp7-13.
- ・ 山崎泰史 (2012.10) 「紡績業の発展を支えた技術企業家―山辺丈夫と菊池恭三―」, WORKING PAPER SERIES, 日本の企業家活動シリーズ(No.57).The Research Institute for Innovation Management, HOSEI UNIVERSITY.pp3-4.
- ・ 楫西 光速 (1950) 日本近代綿業の成立, 経済選書, pp69-89.
- ・ 古島敏雄 (1985) 体系日本史叢書12, 産業史3,,p264
- ・ 松井幹雄 (2005) 『日本紡績業における生産システムの形成. ―国際比較の視点を考慮して―』 p7
- ・ 渋沢栄一伝記資料刊行会刊 (1955) 『渋沢栄一伝記資料』 第10巻, pp54-58.
- ・ 中村 隆英 (1979) 『日本経済―その成長と構造, 東京大学出版会.,p83
- ・ 庄司, 乙吉 . 宇野, 米吉 (1918) 『山邊丈夫君小伝.』 紡織雑誌社編輯. 紡織雑誌社, p9.
- ・ 中岡哲郎, 石井正 内田星美 (1986) 『近代日本の技術と技術政策』 国際連合大学, ,p98.
- ・ 藤井光男 (1982) 『経営史-日本 -』, 日本評論社,, p73
- ・ 高村直助 (1972) 『日本紡績史序説』 pp208-209
- ・ 山田盛太郎,(1982) 「工業資本主義における端初諸形態, 『日本資本主義発達史講座,』 岩波書店,p5
- ・ Alexander Gerschenkron (1962)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 a book of essays. Frederick A. Praeger, pp27-42.
- ・ Douglas A. Farnie, and David J. Jeremy (eds.), (2004), The fibre that Changed the World: The Cotton Industr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1600-1990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70-177.
- ・ Eugene K. Choia (2009) Entrepreneurial leadership in the Meiji cotton spinners' early conceptualisation of global competition, Business History , Volume 51, Issue 6,pp, 927-958.
- ・ Geoffrey Jones(1996), ―Diversification Strategie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Trading Companies: Anglo-Japanese Comparisons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usiness and Economic History,25. p109.
- ・ Janet Hunter (2006) “Regimes of Technology Transfer in Japan’s Cotton Industry, 1860s to 1890s,” paper presented at 9th conference of the Global Economic History Network, (Kaohsiung, Taiwan, 9-11 May), pp19-23.
- ・ Kenichi Yasumuro (1993) “Engineers as Functional Alternatives to Entrepreneurs in Japanese Industrialization,” in Jonathan Brown and Mary B. Rose, Entrepreneurship, Networks and Modern Busines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91-92
- ・ Tai, Kuo-hui (1993). “Confucianism and Japanese Modernization: A Study of Shibusawa Eiichi” in Subhash Durlabhji and Norton E. Marks, eds., Japanese Business: Cultural Perspectiv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pp.43-56
- ・ W. Miles Fletcher (1996) “The Japan Spinners Association: Creating Industrial Policy in Meiji Jap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2:1 (Winter), pp49 - -75.

要 旨

日本の産業革命期において紡績業は近代化の主軸を成し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巨額の綿糸収入額に危機感を感じた明治政府は収入防止を目的に近代的な機械紡績を設立し始めた。すなわち(1)、官営工場の設立、(2)、政府購入の紡績機械を払下げ(3)、紡績機械の収入代金の立替などを中心に殖産興業政策で2,000錘 紡績と称えられている10期紡績が登場したがこれも規模の経済によって失敗した。

このような技術的、経営的困難を乗り越えた蒸気力の利用による1万錘 規模の大阪紡績の創立であった。大阪紡績の発達は眩しい成長を成して大企業時代を先導した。大阪紡績は近代日本の最初の紡績株式会社として革新的成功をして幾多の企業人たちが絶えず紡績業に飛びこむようにして近代日本の代表的産業で発展することになると同時に日本産業として初めて海外に進出した産業である。特に、明治時期の商業資本が産業資本化した最初の産業であると評価している。これをできるようにしたことは渋沢栄一の株式会社の導入等の創造的企業家精神と、山辺丈夫の技術者の思考が結合したことであると言える。

キーワード： 2,000錘 紡績、日本の産業革命期 明治時期、
大阪紡績 渋沢栄一 山辺丈夫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